

#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청년기 형제자매의 내발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이 축 하(성균관대 석사) · 조 희 선(성균관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청년기 형제자매의 내발적 직업가치관<sup>1)</su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형제자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17세에서 25세 사이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는 118명(남 39명, 여 79명)과 비교집단으로 일반인 형제자매가 있는 118명(남 35명, 여 83명)이며, 측정도구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은 김수연(1998)이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인 FACES II, III, IV를 종합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가족사정 척도이며, 내발적 직업가치관은 임인재(1990)의 ‘직업가치관 검사’와 최동선(1997)의 논문을 바탕으로 개발된 양한자(1997)의 논문에서 사용한 검사로 하위변인은 봉사성, 독립성, 욕구충족 및 자아실현, 지도성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17.0을 통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내발적 직업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하여 유리와 속박, 경직 수준이 높으며, 내발적 직업가치관에선 봉사성과 독립성에 더 가치를 두었다. 둘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내발적 직업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종교유무, 출생순위, 형제 동거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집단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내발적 직업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집단은 가족이 경직수준이 높을 때 봉사성과 지도성에서 차이를 보였고, 일반 집단은 가족이 연결, 융통 수준이 높을 때 독립성과 욕구충족 및 자아실현에 더 가치를 두었다. 넷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유무 집단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내발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집단에서 가족적응성의 경직이 봉사성, 지도성과 같은 타인과 관련된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집단에서 가족응집성의 연결, 융통이 독립성과 욕구충족 및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는 가족이 경직되어있다고 인식하였을 때, 봉사성, 지도성과 같은 타인과 관련된 직업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혹은 장애형제 미래부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의 유형은 Ginberg(1952)와 Super(1970)의 직업가치관 분류방식을 기초로 하여, 봉사성, 독립성, 욕구충족 및 자아실현, 지도성의 4가지 변수로 내발적 직업가치관을 설명하고자 한다.